

TOGETHER Harim



부메랑 효과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한 목적을 벗어난 결과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아보리진Aborigine이 사냥이나 전쟁 시
사용한 도구 ‘부메랑Boomerang’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던진 부메랑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처럼 의도를 벗어나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02	기획포커스 시사 상식 사전: 심리편 목차	14	신제품 이야기	19	슬기로운 MZ생활
04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15	MZ 생각 슬기로운 안전생활	20	비즈니스 잉글리쉬
06	대리점 탐방 도경유통	16	하림인 이야기 경북지점(신)/경북영업팀	21	눈으로 보는 하림
08	하림 뉴스 2025년 10월	18	전국 닭 요리 대구-더큰본부	22	쉽게 보는 하림 용어 사전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5년 11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www.harim.com

사라지기에 더 절실해진 계절

제철 코어로 나만의 계절 즐기기



계절을 온전히 즐기는 ‘제철 코어’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코어는 ‘핵심’이나 ‘중심’을 뜻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특정한 정체성이나 스타일, 취향을 나타내는 뜻으로 코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제철 코어’는 알맞은 때를 뜻하는 ‘제철’과 핵심을 뜻하는 ‘코어(Core)’가 합쳐진 단어이다. 특정 계절에만 가능한 먹거리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흐름을 뜻하는데, 기후 변화로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라는 위기감, 희소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사라지는 계절을 붙잡고 싶어 하면서 음식을 통해서나마 사계절을 즐기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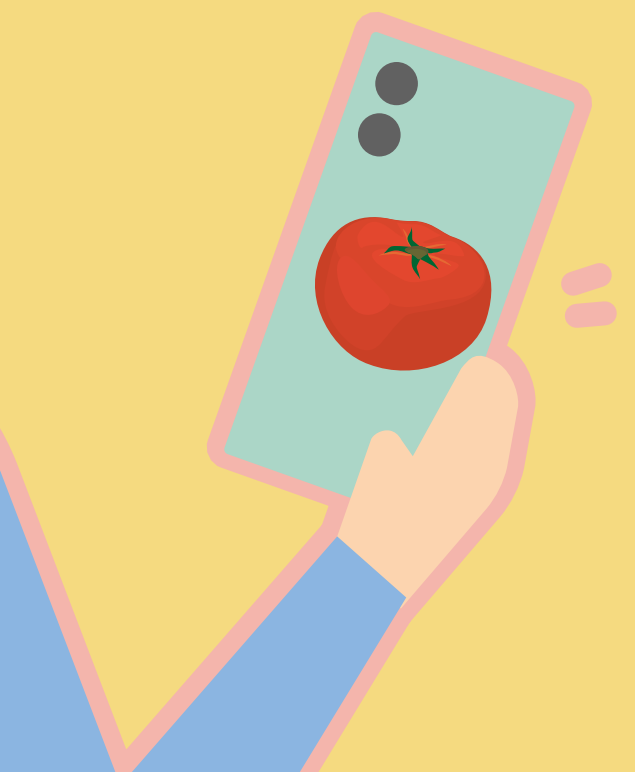
‘제철코어’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식음료 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제철음식’ 해시태그가 포함된 게시물 수가 30.5만 건을 넘어서는 등 제철 음식 인종은 MZ세대에게 있어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제철의 맛을 즐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계절만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서비스가 주는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 중심 소비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아니면 못 즐기는, 나만의 계절을 사는 게 소비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에 맞춰 식품업계도 제철 식재료의 신선함과 색깔, 맛을 살린 이색 제품을 선보이는 등 기획·개발 단계부터 제철코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 계절만이 줄 수 있는 감정, 분위기, 스토리, 감각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나 소비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름에는 수박과 자두, 가을에는 고구마와 밤 등을 활용한 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철 코어 전문관’을 열어 매달 계절의 신선함을 강조하는 제품들은 선보이고 있고, 외식업계·패스트푸드 업체, 유통업계도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철코어는 식탁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식음료는 물론 패션과 출판,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특정 과일 종류와 패션 품목을 결합한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올 여름 가장 주목받은 식품은 ‘토마토’였다. 티셔츠부터 키링(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지갑, 파우치, 네일아트까지 확산했다. 출판계에서는 계절을 배경으로 한 시집이나 동화를 모아 선보이는 큐레이션(우수한 작품을 뽑아 전시하는 것)이 늘었다. 지나가는 계절을 놓치지 않고 싶다는 욕구가 독서 취향에도 반영되고 있다. 뷰티 업계는 계절 과일과 식물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기도, 계절에 어울리는 무드 인테리어를 강조하는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도 제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계절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 개성이 중요한 MZ세대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철코어를 활용하고 있다. 음식에서 출발해 뷰티, 패션, 인테리어, 여행 등으로 확장되며 계절의 순간을 축제처럼 즐기는 이 제철코어는, 제철의 맛과 스토리가 어우러진 제철의 산업화로 나아가갈 전망이다.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지금 이 계절을, 놓치지 말고 진하게 즐겨보자.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식품유통의 핵심은 청결”

도경유통

도경유통은 1999년 설립된 닭고기 전문 유통업체로, 임선택(56) 대표를 중심으로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하림 프라임 대리점이다. 현재 6대의 차량과 7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대구 시내 마트와 시장 등 300여 곳의 거래처에 하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은 100억 원을 돌파했고, 2025년 매출은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임선택



Q. 유통 사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유통업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직업입니다. 자본금 6만 원으로 무턱대고 대구로 올라와 자동화기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었고, 당시 닭고기 유통회사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배우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닭고기 유통업은 정직하게 하면 오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5평 남짓한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발로 뛰며 거래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점차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160평 규모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사장님의 사업 철학과 차별화된 영업방식은 무엇인가요?

제 철학은 '초심을 잃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입니다. 유통업은 결국 신용의 사업입니다.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배송하고, 깨끗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자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내·외부 세차를 매일 필수로 하고, 창고 청결과 온도 관리를 철저히 유지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직접 제빙작업을 해서 닭고기 신선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신용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이런 꾸준함이 지금의 도경유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하림과의 인연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하림과의 인연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일반 브랜드 제품을 취급했는데, 품질과 신뢰에서 하림을 따라올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림 본사를 찾아가 대리점을 요청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림 제품을 100% 사용하고 있고 복수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실록' 포장육을 도입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림은 저에게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관계로 더 단단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직송 배송시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Q. 현재 가장 큰 고민과 향후 사업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은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도경유통만의 색깔을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구시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거래처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통망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무리한 확장보다는 신뢰 기반의 성장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Q. 끝으로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능력보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함께해주는 가족과 직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도경유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사무 업무를 도맡아 해주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5년 이상 함께한 동료들로,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성수기엔 정말 힘든 일도 많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 격려하며 보너스로 마음을 나눕니다. 앞으로도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하림 창립 39주년 기념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하림이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난 39년간 하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 덕분에 하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39년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임직원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안전과 5S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의 5S 활동을 철저히 실천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각 리더는 현장 패트rollers를 생활화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품질과 생산성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갑시다.

하림의 최우선 가치는 '품질'입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료, 사육, 부화장 및 각 공장에서 '생산성' 향상도 필수적입니다. 최첨단 자동화 공정 개선, 공정 혁신 등 생산성을 높이고, 도전 목표를 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자 일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긍정적인 경험으로 고객 지향형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가와 협력업체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십을, 고객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주주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사회에는 공헌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업력, 마케팅력, 개발역량을 높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하림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갑시다.

넷째, 현장 실행에 집중합시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비전이라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하림의 저력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현장 실행력이 하림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완수하며, 작은 개선부터 과감한 혁신까지 끊임없이 시도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One ERP로 업무 혁신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합 비즈니스 관리 솔루션인 SAP의 도입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One ERP 시스템 구축은 단순히 기술적 구현을 넘어, 조직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을 창출해 가면, 앞으로 다가올 하림의 미래는 더욱 밝고 빛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림 임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업계 1등으로서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며 발전하는 하림인이 됩시다.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0.

(주)하림 대표이사 사장 정호석

01

창립 39주년, “식품산업 선도 및 끊임없이 혁신한 결과”

장기근속자 포상. 사가 제창 등 행사 열어

우리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10일 ‘2025 제39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창립기념 행사는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사, 장기근속자 포상, 기념사(격려사), 찬양 및 축복기도, 사가 제창, 폐식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기근속자 포상은 30주년 고한호 신선식품본부장, 이형준 종계부화사업부장 등 5명, 25주년은 문성국 고객만족팀장, 이인숙 재정팀장 등 25명, 15주년은 정은성 FC2팀장, 이동연 안전보건팀장 등 58명에게 기념상패와 기념품이 주어졌다.

이날은 신우회 천사합창단이 오랜 시간 준비한 하림을 위한 특송 등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25주년 장기 근속한 사육1팀 오대환 팀장은 “하림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하면서 어느덧 25년 근속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하림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써 성장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30주년 장기 근속한 이형준 종계부화사업부장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

에서 밀어준 대표이사님, 동료,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회사가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글로벌 식품회사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30주년 장기 근속 고한호 신선식품본부장은 “하림과 함께한 30년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 중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하림은 지속 성장할 것이다. 그 안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하림이 되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식문화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내기자 | 김유리 대리

02

소아암 어린이 위해 사랑의 헌혈증 500장 전달

2031년까지 매년 헌혈증서 정기 기부 약속

우리 회사가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해 임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헌혈증서 500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지난달 15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진행된 헌혈증 전달식에는 우리 회사 지속경영팀장 일행이 참석해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10년 전보다 약 25% 감소한 데에 따른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여 년간 임직원들이 기탁한 헌혈증서를 기반으로 ‘헌혈증서 정기 기부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서는 프로그램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협회를 통해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아들의 치료와 수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의 정기 기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7년간 매년 500장의 헌혈증서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이후에도 매년 임직원들이 기증한 약 300장의 헌혈증서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정호석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헌혈증이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도 ‘임직원 헌혈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 회사는 분기별 ‘임직원 헌혈 참여 캠페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협력을 다각화하여 기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례 홍보 활동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3

글로벌 양계 기술 습득에 박차 가해 해외 선진지 견학 참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리 회사가 한국육계협회가 주관한 '2025년 육계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참여해 글로벌 양계 기술 습득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가,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스마트 축산 및 지속가능한 사육 기술 등 해외 혁신 기술을 국내 농가에 접목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 9일~13일 중국, 지난달 9일~13일 베트남 등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견학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국가에서 열리는 주요 축산 박람회에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살피는 한편, 현지 유수의 축산 그룹을 방문하여 혁신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산 기업들을 견학하며, 스마트 축산 시설 및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집중했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해외 선진지 견학은 국내 양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견학에 참여한 농가들이 해외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고 이를 자신과 주변 농장에 접목함으로써, 농가들이 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는 농가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선진 기술 습득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사내기자 | 강승헌 사원

04

마이크로파 활용한 방제기 공동 개발 친환경적인 첨단 방제기술 통한 딱정벌레 완전 박멸 모색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농장 내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방제기 공동 개발 및 도입을 위한 미팅을 진행하며 첨단 방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살충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사육사업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 및 한국전기연구원과 전문 방제기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28일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 임직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제기 첫 시연회 및 도입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농장의 주요 해충인 딱정벌레(외미거저리)는 닭의 피부에 상처를 입히고 계사 단열재를 훼손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 하지만 기존 살충제는 해충의 저항성으로 인해 완전한 박멸이 어렵고, 잔류 물질 문제 때문에 친환경 농장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사육사업부가 주목하는 마이크로파 방제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첨단 기술이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파가 토양 수분을 가열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며, 마이크로파 분배기술을 활용한 다중 방사 모듈을 통해 방제 산업화가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토양 잔류나 독성이 전혀 없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충을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육사업부는 시제품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방제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이를 활용한 전문 방제반을 입추 전 휴지기에 농장에 투입함으로써, 가장 친환경적이고 확실한 해충 방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마이크로파 기술은 농장의 위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농가에는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내기자 | 강승헌 사원

05

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집체교육 진행

신규입사자 41명 리버스 멘토링, 단합대회 등 참여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15~19일, 지난달 20~24일 두 차례에 걸쳐 '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집체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25년 9~10월 신규입사자 41명을 대상으로 본사 및 보령에서 5일 동안 진행됐다.

집체교육은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기초지식 습득 및 이해, 수직적·수평적 소통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HCR 투어를 시작으로 식품 철학, 하림 소개 및 인재상, 종계 및 부화의 이해, 사육의 이해, 생산·공무의 이해, 영업의 이해, 고객서비스, 식품품질안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임원과 신입사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시장 속 하림'을 확인하고, 단합대회를 통해 친목과 팀워크를 강화



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집체교육에 참여한 유통영업팀 정의진 인턴은 "5일 동안 신입사원 집체교육을 통해 업무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신입사원의 자세, 태도 등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동기와 선배, 임원분들과 소통하며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기획인사팀 장재석 대리는 "신입사원들이 핵심인력으로 조기육성 될 수

있도록 하림의 조직문화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회사가 인재 성장과 관계 형성에 진심임을 느끼고, 하림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내기자 | 남다빈 사원

06

피오봉사단 12기 해단식 성료

지난 5개월 여정 돌아보며 친환경 일상 약속

우리 회사의 소비자 및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환경봉사단 '피오봉사단'이 지난 달 25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12기 해단식을 갖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해단식을 진행해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해단식에 앞서 피오봉사단 가족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솔섬 해변 일대에서 해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해변 곳곳을 누비며 피서객들이 남긴 쓰레기와 파도에 밀려온 폐플라스틱, 비닐 등을 줍고, 분리배출도 하며 유난히 길었던 여름 날의 흔적을 확인했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고 돌아온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정호석 대표이사의 영상 메시지로 시작된 해단식에선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 회사 무항생제, 동물복지 닭고기를 활용해 저탄소 요리에 도전했던 쿡킹 클래스, NGO '웃칸'과 함께 헌 옷을 모아 기부했던 헌 옷 리사이클 캠페인,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여러 기후대의 식물을 관찰하고 반려 허브도 심어 본 친환경 숲 탐험 등 5개월간의 여정을 짚어보고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피오봉사단 관계자는 "올해는 숲과 바다 등 지구의 다양한 환경을 접하며 어느때보다 알찬 시간을 보냈다"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

로 참여해주신 피오봉사단 12기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다채롭고 유익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오봉사단'은 2014년 창단해 12년째 탄소중립과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매년 아이를 동반한 소비자 가족과 하림 임직원 가족들이 따로 또 같이 푸른 지구를 위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07

전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주관, 제16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 참여 푸드트럭으로 미래 꿈나무 응원..무료 시식회 열어

우리 회사 푸드트럭이 지난달 25일 KBS전주방송총국 시민복지광장에서 열린 '제16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 행사장을 찾아 '하림 용가리치킨, 도넛치킨, 후라이드 순살치킨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무료시식회는 전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강진순) 전북수학체험센터가 주최·주관한 '지역 수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후원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는 올해로 3년째 동참해 행복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은 함께 즐기며 보고·만지



고·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학체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실력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 및 전시부스 △수학대회 △수학산책 등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홍보팀 장민 사원은 "하림 푸드트럭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3년째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전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지역 인재 육

성을 위한 '글로벌 학생과학캠프'를 후원하고 있다. 작년 일본에서 진행된 1회 캠프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 6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2회 캠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캠프에는 전북 도내 초·중학생 24명이 참가해 싱가포르의 첨단 과학기술과 지속 가능성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와 함께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 후원을 비롯해 청소년 문화탐방 후원, 장학금 지급, '아침머고 아침나눔' 행사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며 ESG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8

4분기 사랑의 헌혈로 ESG 경영 실천 동절기 혈액난 대비 선제적 헌혈에 동참

우리 회사가 지난달 13일,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4분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헌혈 인구 감소와 동절기 혈액 보유량 저하 등 복합적인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우리 회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협력해 본사와 정읍공장에 각각 헌혈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사랑의 헌혈'은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매년 분기별 1회씩 꾸준히 동참하며 생명 나눔의 기업 문화를 다져왔다.

이날 행사에도 4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며, 기부된 헌혈증서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생명 나눔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모여 14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사랑의 헌혈'은 하림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정성의 표현"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다각적인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학생과학 캠프 후원 △초등 장학생 도서지원 사업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참여와 후원 활동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하림피오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09

유통 채널별 특화 닭고기 제품 인기
온·오프라인 맞춤형 제품 라인업 선보여

최근 식품업계가 유통 채널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공력에 나서고 있다. 나이와 성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채널별 주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 우리 회사 역시 제품마다 입점 전략을 세분화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식단과 간편 요리를 중시하는 30·40세대가 주요 고객인 컬리에는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을 론칭했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에 맛있게 양념되어 있어 익히기만 하면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제품으로, 일상식으로도 손색 없는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

창고형 마트에서는 냉동고에 쥘여두고 온 가족이 푸짐하게 영양간식이나 어른용 안주로 활용하기 좋은 대용량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통안심크런치텐더'가 대표적이다. 부드러운 닭고기 안심에 누룽지와 볶은 현미 가루를 입혀 튀겨내 바삭하면서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코스트코 단독 제품 '춘천식 닭갈비' 역시 인기 상품이다. 신선한 100% 국내산 닭다리살과 매콤한 특제 양념소스, 떡, 쫄면 사리로 구성됐으며, 프라이팬에 물 200ml와 모든 재료를 넣고 볶아주면 손쉽게 전문점 수준의 닭갈비가 완성된다.

마케팅팀 관계자는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지고 이용 채널이 세분화되면서, 식품업계는 고객 친화적 콘셉트와 브랜드 협업을 통해 유통 채널별 특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하림 역시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0

연탄 나눔 행사로 따뜻한 연말 준비해요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연탄 1,500장 기부

우리 회사 직장선교회인 신우회 회원 및 천사합창단 단원들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해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신우회 회원 20여 명은 익산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연탄 1,500장을 기부했다.

더불어 국내 선교로 웅포 진소교회에도 선교비를 후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연탄 나눔 행사는 신우회가 지난 1월과 9월 '떡·밤 행복나눔 판매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김병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이 바로 멋진 영웅이다"며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겨울을 녹이는 큰 기적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신우회 단장을 맡고 있는 전략구매실장실 김재관 부사장은 "신우회 회원 모두의 마음이 담긴 연탄으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계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나눔행사, 특송 등 임직원들을 위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 어가는 신우회 회원 및 천사합창단 단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고 전했다.

NEW!

정통 일식 커리풍닭, 정통 사천식 마파풍닭 출시

이국적 스타일의 정통요리 소스로 구성된 간편식 2종



정통 일식 커리풍닭

우리 회사가 해외 여행지의 미식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신제품 ‘정통 일식 커리풍닭’, ‘정통 사천식 마파풍닭’ 2종을 출시했다.

신제품 ‘정통 일식 커리풍닭’, ‘정통 사천식 마파풍닭’은 국내산 닭고기와 정통식 소스로 구성된 제품이다. 신선한 냉장 닭고기를 엄지해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 속까지 골고루 간이 배 수 있도록 했다.

‘정통 일식 커리풍닭’은 평범한 일반 카레가 아닌 깊고 진한 풍미가 살아 있는 일본식 브라운 커리 소스를 사용했다. 촉촉한 큐브형 닭가슴살이 듬뿍 들어 있어 취향에 맞게 밥, 우동사리, 빵 등을 곁들여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즐기기 좋다.

‘정통 사천식 마파풍닭’은 마라의 본고장 중국 사천 지역의 향신료 맛을 살려 정통 사천식 마파소스 특유의 얼얼한 마라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마파두부 속 두부의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닭고기와 돼지고기 다짐육 대신 잘게 다진 닭고기를 함께 사용해 다채로운 식감을 살렸으며, 따뜻한 밥 위에 올리면 중독성 있게 매콤한 덮밥으로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간편하다.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닭고기와 소스, 물을 약간 넣고 중약불에서 6~7분간 잘 저어가며 끓이면 손쉽게 완성된다.

‘정통 일식 커리풍닭’, ‘정통 사천식 마파풍닭’은 GS더프레시, 전국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선마케팅팀 김단비 사원은 “고물가에 ‘집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밥이랑 잘 어울리면서도 해외에서 맛보던 색다른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통 일식 커리풍닭’, ‘정통 사천식 마파풍닭’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닭고기에 다채로운 맛을 담은 간편 조리 제품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닭구이닭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 출시

손질, 양념 걱정 없이 바로 구워 드세요!



닭구이닭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

우리 회사가 이마트와 손잡고 ‘닭구이닭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 2종을 출시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닭고기 역시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원하는 부위를 골라 구이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이마트가 대형마트 최초로 선보인 구이용 닭고기 전문 코너 ‘닭구이닭’에서 판매할 닭가슴살 스테이크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닭구이닭x하림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국내산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밀간 한 제품이다. ‘오리지널’과 ‘스파이스’ 총 2종이며,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 달콤한 텍사스 바비큐 소스를 함께 구성해 더 편리하다.

‘오리지널’은 촉촉한 닭가슴살 속살에 블랙페퍼의 풍미가 배어 있어 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치킨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스파이스’는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더해 중독성 있다. 기호에 따라 버터를 넣어 고소한 풍미를 더하거나 아스파라거스, 양파, 버섯 등을 곁들이면 더 근사하고 풍성한 요리가 된다.

‘닭구이닭x하림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이마트 ‘이제부터 닭구이닭’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선마케팅팀 이무열 팀장은 “최근 익숙한 식재료를 색다르게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구이용 닭고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부드러운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시작으로 우리 회사 닭고기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닭구이닭’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안전생활!

안전한 일터, 예방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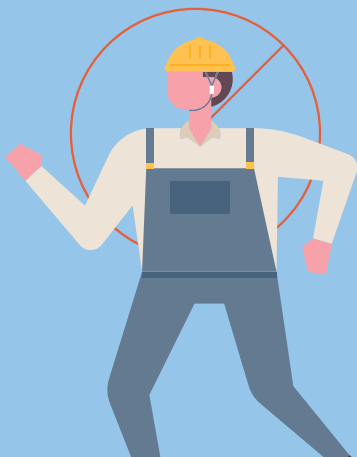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은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함께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이러한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평범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다. 이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589명으로, 2023년(598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전체 사고 사망자의 57.6%(339명)는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추락·끼임·부딪힘 재해로 58.2%(343명)가 목숨을 잃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산재 사망 소식도 하루가 멀다고 들리고 있다. 안전한 일터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산재를 예방하는 데는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 경영자는 안전 관련 장비와 인력,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안전 확보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인구·사회적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고령 노동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강화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언어 장벽을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하고, 고령 노동자에게는 신체적 특성에 맞는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역시 직종별 위험을 고려한 안전관리와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게 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예방 한 온스는 치료 한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완벽한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일터의 안전은 현장의 실질적 실행에서 비롯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를 좌우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경각심과 꾸준한 실천이다. 안전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 속에서 쌓아가는 문화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위험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슬기로운 안전생활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새내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며 ‘예방의 가치’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안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자, 동료를 위한 약속이다.

안전보건팀 전재현 사원



치킨의 성지에서 뜨겁게 뛰는 사람들,

경북지점(신)/경북영업팀



< 경북지점(신)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길 30

번호: 053-383-9771



> 경북영업팀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33

번호: 010-9973-8856(정재홍 사원),

010-7705-8171(전종민 사원)

경북지점(신) 담당 업무



양준석 지점장

대구/경북지역 영업 총괄



황선용 과장

경북지역 대리점 영업 및 관리



배창민 대리

대구지역 대리점 영업 및 관리



김경진 사원

대구/경북지역 유통점 및
급식 영업 및 관리

경북영업팀 담당 업무



노정진 팀장

대구, 경북권역 육가공 대리점,
유통점 영업 총괄



정재홍 사원

대구, 경북권역 대리점
영업 및 관리



전종민 사원

대구, 경북권역 대리점
영업 및 관리



전태주 사원

대구, 경북권역 대리점
영업 및 관리

1.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북지점(신)
양준석 지점장

저희 경북지점(신)은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하림의 제품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맡고 있는 만큼 그 어느 곳보다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북영입팀
노정진 팀장

저희 경북영입팀은 하림의 가공 제품을 경북 지역 대리점과 유통 채널에 공급하며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가족 같이 끈끈한 팀워크로 어려운 상황도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2.

경북지점(신)과 경북영입팀은 어떤 제품을 담당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경북지점(신)
황선웅 과장

경북지점(신)은 육계, 삼계, 토종닭, IFF 부분육 등 신선 식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프라임대리점(도경유통, 네오푸드), 급식대리점(다다피엔피), 치킨프랜차이즈(갓에프엔비, 실수요처(미래유통)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처들이 있으며 모두 저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경북영입팀
정재훈 사원

경북영입팀은 하림의 가공 제품 전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통훈제치킨과 냉동비엔나 등 부서 전용 제품을 통해 여러 프랜차이즈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명일푸드, 정연푸드 등이 있으며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반올림피자, 동궁찜닭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3.

영업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경북지점(신)
배창민 대리

영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고객 중심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은 사람과의 소통이 핵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영업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4.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 현장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북지점(신)
김건진 사원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거래처와의 꾸준한 소통과 자주 방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처가 체감하는 시장 반응과 소비자 요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팀 내에서 공유하고 신속하게 전략을 세움으로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영입팀
전종민 사원

거래처를 꾸준히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경쟁사 동향 등 심도 있는 의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영업 방향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나만의 영업 비결은 무엇인가요?



경북영입팀
전대주 사원

저는 눈치가 빠르다는 점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소 주변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런 감각이 영업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평소 대화할 때 말보다 표정,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빠르게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가장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경북지점(신)
배창민 대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담당 가맹점에서 닭고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건 왜 이런 거야?' 하고 물었고 저는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하림 직원이 직접 알려준 거야'라며 뿌듯해하면서 가맹점에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계기로 저도 사육이나 생산 관련 지식을 더 쌓아서 제 거래처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6.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북지점(신)
양준석 지점장

저희 부서의 향후 목표는 지역대리점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지역대리점은 경상북도 각 시·군을 대표하는 하림의 주요 파트너로, 인구 유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충성 고객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지역대리점의 성장은 당사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대리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영입팀
노정진 팀장

저희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이번 소식지 참여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영입팀 파이팅!

사내기자 | 정진 사원

닭똥집의 끝판왕 대구평화시장 '더큰본부'

동대구역 근처 대구평화시장에는 '닭똥집 골목'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오래된 전통과 골목 특유의 활기가 어우러진 이곳에는 다양한 닭요리 전문점이 모여 있다.

그중 골목 초입에 자리한 '더큰본부'는 닭똥집부터 찜닭, 치킨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다.



<대표 메뉴>

- 문어똥집
- 통오징어똥집
- 모듬똥집

<정보>

위치: 대구 동구 아양로9길 8 1층

전화번호: 0507-1378-7458

편의시설 및 서비스: 콜키지 가능, 단체 이용 가능,
포장 가능, 배달 가능, 남/녀 화장실 구분, 주차 가능, 대기 공간





쫄깃함의 진수, 문어종집

닭동집의 진가는 단연 ‘쫄깃한 식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쫄깃함을 가진 문어튀김을 더한다면 어떨까.

이곳의 ‘문어종집’은 이름 그대로 통문어 튀김이 닭동집 위에 올려진 독특한 메뉴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데, 통문어라 자칫 질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

닭동집 튀김은 후라이드와 양념, 두 가지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후라이드는 소금에 콕 찍어 먹으면 고소한 튀김옷과 소금의 짭조름함이 어우러져 담백한 매력이 살아난다.

양념 동집은 반대로 매콤달콤한 양념이 더해져, 맥주 한잔이 절로 생각나는 궁합을 자랑한다.

잡내 없이 깔끔한 맛에 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어 닭동집 초심자들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만하다.

함께 제공되는 고구마튀김과 곁들이면 달콤함과 짭조름함이 어우러진 ‘단짠 조합’이 완성된다.

닭동집을 더 다양한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후라이드, 양념, 간장맛까지 3종 세트로 즐길 수 있는 ‘모듬동집’도 추천한다.

기본이 탄탄한 정석의 맛, 간장순살찜닭

찜닭의 본질은 간장 맛이다. ‘더큰본부’의 간장순살찜닭은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풍성한 맛의 균형을 이룬다.

간장 베이스의 양념은 짜지 않고 은은한 매운맛이 뒤따라 느끼함 없이 깔끔하며, 양파, 대파 등 신선한 채소들이 듬뿍 들어가 국물의 깊이를 더해준다.

당면 또한 이 집의 포인트다. 쫄깃하면서도 양념이 속까지 잘 스며들어 한 젓가락마다 풍미가 가득하다.

하이라이트는 흰 쌀밥 위에 으깬 감자와 닭고기를 올리고, 매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비벼 먹는 순간이다. 입안 가득 감도는 짭조름한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더큰본부’는 동대구역과 가까워 여행객들에게도 접근성이 좋다.

닭동집의 매력을 새롭게 해석한 문어동집부터 찜닭, 치킨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대구평화시장의 활기와 함께 닭요리의 다양한 변주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더큰본부’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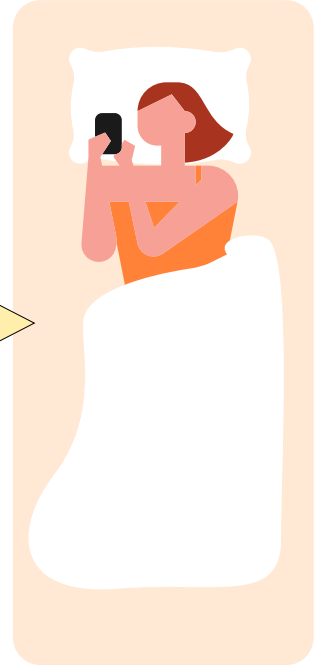


(회사 내 MZ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MZ들의 직장 스트레스 해소법

MZ세대는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똑똑하게 풀고 있습니다.

‘진’ 해소법 한눈에 살펴볼게요!



1. 마음 관리, 상담도 이제는 흔한 일

저는 심리 상담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정신과?’ 하면 뭔가 숨겨야 할 것 같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젠 ‘마음 건강’ 챙기는 게 그냥 일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은 회사에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잘 이용하는데, 우리 회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더라고요. 회사 내에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훨씬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도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나도, 동료들도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퇴근 후엔 회사 생각은 접고, 나에게 집중!

퇴근하자마자 저는 ‘회사 스위치’ 바로 OFF 해요. 진짜 회사랑 완전 선 그어버리는 느낌? 친구들도 각자 자기만의 ‘스트레스 차단법’이 있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신나게 운동하거나, 동네 한 바퀴 멍하니 산책하거나, 심지어는 창밖 풍경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마음이 확 편해져서 다음 날 더 힘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퇴근 후가 제 하루의 ‘리셋 버튼’이에요! 요즘은 ‘퇴근 후의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히 느껴요.

3. 덕질은 내 삶의 필수 힐링템

덕질이 현생 버티기의 핵심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특효약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친구들도 다들 자신만의 덕질로 스트레스 풀더라고요.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를 모아서 전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무대 영상을 보기도 하구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일상의 활력소이자 감정 정화제 같은 존재예요. 솔직히 덕질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쁨 보충제’인 셈이죠.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존재예요.

4. ‘MZ 적금’으로 스트레스도 저축 중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MZ 적금’ 들어보셨나요? 상사한테 혼날 때마다 18원씩 자기 통장에 입금하는 건데, ‘스트레스 참는 만큼 돈이 쌓인다’는 셈이죠. 나중에 이 돈으로 맛있는 거 먹거나 여행 가서 제대로 풀 생각이예요. 웃기지만 은근히 똑똑한 셀프 보상법 같아요. 저도 슬슬 따라해 보려 하는데, 혼날 때마다 ‘돈 버리는’ 기분이 들면서도 어쩔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결국 스트레스도 한 번씩 쌓아두고 잘 풀어야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5. 익명 채팅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회사 사람한테 다 말하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오히려 오픈채팅방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마음껏 속마음을 털어놓는 편이에요.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나 너무 억울함’ 하고 글 올리면, 순식간에 공감의 댓글이 우르르 달릴 때가 있는데, 그때 댓글 보면서 위로도 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면서 힘도 내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보다 더 빠르게 공감 받는 그 맛에 스트레스가 절로 풀릴 때가 많아요. 웬지 모르게 서로 정체를 몰라서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묘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성과 리뷰 &
피드백 주고받기

<성과 리뷰 & 피드백 기본 샘플>

Mark : Jane, (A) let's discuss your performance over the past quarter.

Jane : Sure. (B) I'm happy to receive any feedback.

Mark : (C) You did a great job on the client presentations, but I think you can improve your time management.

Jane : I see. Do you have any suggestions on how I can improve?

Mark : (D) Try prioritizing tasks using a to-do list and setting deadlines for yourself.

Jane : That makes sense. I'll start by organizing my daily schedule more efficiently.

Mark : Great. And don't hesitate to ask for help if you feel overwhelmed.

Jane :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your guidance. I'll make sure to apply your advice.

Mark : (E) I'm confident you'll make great progress next quarter.

마크 : 제인, 지난 분기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인 : 네,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크 :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은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시간 관리 면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제인 :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마크 : 할 일 목록을 활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인 : 그 말씀이 맞네요. 우선 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크 : 좋아요. 업무가 벅차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인 : 조언 감사드립니다.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마크 : 다음 분기에는 훨씬 발전한 모습을 보일 거라 믿어요.

<성과 리뷰 & 피드백 기본 패턴>

(A),(B) 성과 리뷰 시작하기

- Let's discuss your performance over the past quarter
지난 분기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How do you feel about your performance lately?
최근 본인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 I'd like to go over some highlights from your work.
당신의 업무 중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 This meeting is to reflect on your progress and set goals.
이번 미팅은 성과를 돌아보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C), (E) 피드백 제공 및 개선점 논의하기

- You did a great job on [task], but...
[업무]는 아주 잘했지만...
- I think you can improve your [skill].
[스킬]을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 Consistency will help you perform even better.
꾸준함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예요.

(D) 개선 방법 제안하기

- Try prioritizing tasks using a to-do list.
할 일 목록을 활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 Consider breaking large projects into smaller tasks.
큰 프로젝트를 더 작은 과제로 나누어 보세요.
- You could use time-tracking tools to stay on schedule.
시간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일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Review your goals weekly to stay focused.
매주 목표를 점검하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Setting deadlines for yourself might help.
스스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눈으로 보는 하림

2025년 10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우리 회사는 지난달 13일 신입사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4일 우리 회사는 이달의 하림인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달 15일 농림부장관 주재 치킨벨트
간담회가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1일 삼기부화장
리모델링 TF를 꾸려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23~24일 팀장 리더십 향상 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One ERP 구축을 위해 Cut-
over 이행 등 오픈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이보엠택 대기 방지시설 증설
공사 패트rollers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우리 회사 안전보건팀 이동연
팀장이 2025 산재예방 활동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하림과 함께한 사람들



1013

목우촌 대표이사



1015 KDI 외국식품업계 대표단



1016 PBA 하림드래곤즈 선수단



1022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이득신 본부장



1027

파푸아뉴기니 장관



1029

서일영 원광대학교 병원장,
이두희 코레일 전북본부장 등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0월에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사)한국부인회 전북도지부,
김제특수교육지원센터, 한국교원대학교 등 3,496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똑! 소리 나는 하림 용어 사전

‘IFF’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하림 닭고기!



IFF

INDIVISUAL 각각의 고기를 개별적으로
FRESH 신선한 상태로
FROZEN 급속 냉동

IFF는 도계 후 세포가 살아있는 신선한 닭고기를
 -35°C 이하로 40분간 개별 급속 냉동하여
 육질의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일반냉동 (일반냉동)
 큰 얼음 덩어리 생성으로 세포가 파괴
 ✓ 육즙손실
 Drip 현상 발생
 냉동시간 : 24시간 ~ 26시간

VS



IFF (급속냉동)
 작은 얼음 덩어리로 세포가 완전히 유지
 ✓ 육즙손실 없음
 Drip 현상 없고 신선함 유지
 냉동시간 : 30분

**천천히 냉동 시키는 일반 냉동과는 달리 IFF는 급속냉동으로
 얼음결정 생성을 줄여 육즙 손실이 적고, 도계 후
 급속 냉동 하기 때문에 신선육에 가까운 품질을 유지해요!**





IFF 닭고기는 신선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빠르게 열린
프리미엄 급속 냉동 제품으로, 필요한 만큼만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F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맛을 전달하기 위한
 하림만의 기술입니다.

오늘도 하림 IFF로, 신선하고 맛있는 한 끼를 만나보세요!

사내기자 | 이민정 대리

이달의 Quiz 퀴즈풀고 선물세트 받자!

2025년 11월 14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림이 모든 수험생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수능 대박! 파이팅!

**2025년도 (주)하림능력고사 문제지
하림고사**

[O,X퀴즈]

2025년 하림은 창립 39주년을 맞이했다

○

X

제 233호 당첨자

송*예 익산시 고현로
 남궁*슬 경기도 화성시
 박*주 익산시 모현동
 최*선 익산시 무왕로

정답 제출 방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같이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771@harim.com



2025년 11월,

하림이 새로운 ONE ERP 도입으로
또 한 번 혁신을 선도합니다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